

新 사찰 건축

15. 일산 여래사 · 서울 구룡사 · 법련사

다양한 문화공간이 시대흐름 선도

건축은 그 시대의 생활상이 반영되는 삶의 배경이다. 그것도 직접적인 배경이다. 그곳에서 삶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신생활도 역시 삶의 일부이고 문화의 일부이다. 사찰 역시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깊은 산을 나와 도심에 지어진 현대의 사찰들은 특히 시대적 요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최근에 지어진 현대건축 양식의 신 사찰 중에는 문화적 공간을 중심에 둔 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일산의 여래사와 서울 구룡사, 법련사가 그렇다.

부처님 모시는 곳...최대한 정성담아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건축 용어에 능숙했다. 시멘트, 래미콘 타일, 전벽돌 등의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공간의 너비 대비 높이가 비율을 논하는가 하면 3.3m의 건물 1층 평균 높이를 정확히 짚어 내기도 했다. 일산 여래사 불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스님은 여래사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건축가와 상의해 외관도 디자인하고 내부 구조와 형태, 재료선택은 물론 구입까지 도맡았다. 공사기간에는 매일 서울에서 일산까지 출퇴근 하다가시피 했다. 3년 동안 자동차 운행거리가 12만km를 기록했다.

부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불사, 일산 여래사다.

2000년 완공된 여래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구룡사와 이란성 쌍둥이 격이다. 1985년 구룡사 주지로 부임한 정우 스님은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구룡사가 현재 외관을 갖추기까지 건축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축적해 여래사를 세웠다. 주변 주택과 이질감이 없도록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암을 덧대었고 울긋불긋한 단청은 자제했다. 사찰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앞부분은 전통사찰지붕 모양을 가져왔다. 불법을 설하는 곳이란 의미를 담아 곳곳에 불교적 상징들을 배치했다.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이르는 계단은 108개다. 구룡사 내부계단은 6개와 9개가 번갈아 반복된다. 6바라밀과 구룡사의 9를 차용한 것이다.

연면적 3천평에 달하는 여래사는 지하 4층에 지상 5층 건물이다. 시공에만 3년이 걸렸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건축물 보다는 1년 정도 더 걸린 셈이다. 기간이 길어진 데는 정우 스님의 꼼꼼함이 작용했다. "정직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정우 스님의 말이었다. 부처님을 모시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레 벽돌을 쌓았고 전깃줄역시 눈에 띄지 않도록 건물 안과 지하에 매설했다. 외관 기둥은 형태미를 고려해 직사각 기둥에서 시공비가 7배나 더 소요되는 원형기둥으로 바꿨다. 주차장 높이도 다른 곳보다 1m이상 높여 어두침침한 공간에 개방감을 줬으며 인등전에는 참선하는 불자들을 위해 온돌을 깔았다.

계다가 공사 과정 중에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끼웠던 유리를 죄다 꺼내 가운데 필름을 부착하고 다시 넣는 수고까지 감수했다. 후일 큰 사고에 대비하고자 무더게 깨질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철근을 손수 사고 레미콘도 직접 발주했다.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래까지 발품을 팔아 구했다. 시멘트 회사 회장까지 만나가며 부식

3사찰 모두 문화공교에 역점

'신행공간=문화공간' 개념 도입

극장·미술관·서점·방송국 갖춰

주변 주택과 조화 위해 단청 자제

건물 곳곳에 불교적 상징 설치

여래사는 뮤지컬 전용 소극장

법련사는 갤러리·서점 운영

에 취약한 바닷모래대신 임진강 유역의 모래를 구해다 썼다. 각각의 건설업자 선정도 불자들 중에서 관련 종사자를 찾아 직접 선임했다. 여래사 건축 현장 소장이자 설계시공 총 책임자는 정우 스님이었던 셈이다.

사찰에 문화 접목

여래사는 통도시 표교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도시 표교를 위해 세워진 곳이다. 표교 기능을 우선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기존 사찰이 오롯이 수행과 예배를 위해 지어진 곳이라면 주택가 옆 혹은 시내 번잡한 곳에 자리를 잡은 도심 사찰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한 곳이 되어야 했다. 현대 사찰은 기능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표교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었다.



서울 구룡사, 탑모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



여래사 1층에 있는 회관, 법회, 지역 소모임 등이 이뤄진다.



일산 여래사는 연면적 3천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도시 표교를 위해 사찰 안에는 방송국, 서점, 찻집, 극장, 회관이 있다.

'일산 신도시의 표교전지기지'로 지어진 여래사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사찰의 성격에 버리지 않고 불자 아닌 일반인들까지 아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 서점, 찻집은 물론 인터넷 방송국, 다목적 회관, 소극장까지 자리잡았다. 문화표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익히 알려진대로 여래사의 뮤지컬 전용극장 '신시 씨어터'는 '시카고', '맘마미아' 등으로 유명한 신시뮤지컬컴퍼니(前 극단 신시)가 2001년 자리를 튼 것이다. 지하 1층에 자리한 220석 규모의 소극장은 높이 7.5m 너비11m로 웅만한 중극장 수준이다. 건물 설계 당시부터 소극장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신행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보겠다는 당찬 시도였다. 원류는 역시나 구룡사였다. 1987년 극단 '신시'가 구룡사에서 창단된 것이다.

현재 여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을 꼽는다면 1층에 자리한 회관이다. 260석의 좌석을 확보한 1층 회관에서는 결혼식도 열린다. 지금은 지역민들이 요청할 때마다 모인장소로 활용되곤 한다. 세미나, 소규모 축제, 각종 모임 등이 불교와 상관없이 열리며 그 외에는 여래사 불교양대학 강의와 법회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음향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웅만한 발표회나 회의, 축제 등 행사 진행이 무리없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전문방송장비가 가득한 방송실에서는 여래사에서의 법회를 녹화해 24시간 인터넷 방송국에서 법음을 상시 전하고 있다.

정우(頂宇) 스님은 법명에 집(宇)이 들어간다. 월하 스님이 지어주셨다. 당호인 아산(芽山)역시 씨(芽)으로 산을 만들라는 뜻이다. 스님은 집을 많이 지어 불자들을 많이 키우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래사 지붕 용마루에는 법륜과 사슴 조형물이 있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녹야원을 형상화한 것이다. 불법이 널리 퍼져 일체 중생이 고를 멸하고 진리를 얻어 해탈되는 전당이 되라는 서원에서 세워진 곳이다.

여래사가 문화표교에 대한 아이디어로 극장을 내세웠다면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서울 법련사 역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996년 법련사에는 서울 도심 사찰 경내에 처음으로 상설미술관인 불일미술관이 들어섰다. 개관 이래 불교미술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는 이곳은 당시 회주 스님이던 현호 스님이 문화와 더불어 숨쉬는 도심속 수행 및 표교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개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초전법륜의 성지 녹야원을 뜻하는 사슴모형의 여래사 지붕



서울 법련사의 서점. 지하에 상설 미술관이 있다.

약사여래부처님 본불(보신불), 현지사 고성분원을 상주처로 하다

약사정도의 약사궁과 빛으로 링크(연결)된 지구촌 보물 4호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위해 햇빛을 밝히다



바다 배경 고성분원 전경

■약사여래부처님, 좌우보처 보살과 전문의 98분 약사정도보살님이 상주하시다

현지사 고성분원의 약사성전에는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과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이 상주하시니, 또 일광불의 좌우보처 약왕보살님 약장보살님 일광불 좌우보처 항성보살님 항덕보살님, 그리고 약사정도에서 파견되어 오신 98분의 전문의(專門醫) 최상수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약사성전은 불교를 중한 성자가 참안했으므로 약사정도의 약사궁과 빛으로 링크가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의 약사성전은 화신불(化身佛)이 머무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약사여래부처님의 보신불이 와서 머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성전에는 항상 도량과 불보살

님들을 호위하는 8만4천의 군사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량을 명 속 깊이까지 탁하고 상된 기를 전부 뽐내고 부처님의 청정한 기로 재워넣은 성지 중 성지입니다.

■의중대왕 약사여래부처님의 실체

약사여래부처님(Bhaisajyaguru-Buddha)은 약사유리광여래라고도 하며 오여래부처님 중의 한분입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다섯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방의 정유리정토에 머무십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몸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의약과 의술 전반에 걸친 최고의 의왕(醫王)입니다. 좌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은 근골(筋骨) 계통에, 우보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은 신경 계통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도를 닦을 때에 12대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 가장 큰 서원이 병고치유의 서원입니다. 무피염(無痲厭)이란 경우도 지지거나 싫어하지 않음으로 중생세간을 넘나들면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약고를 드리워 병고를 구원해줍니다. 부처님은 병고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한 다음 그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행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술을 할 사람에게는 수술을 하고 약을 먹일 사람에게는 약을 먹입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정도 - 동방 정유리정토

동방 만월세계 약사정토(정유리정토)는 서방극락정토보다 한 단계 높은 보살님들의 정도입니다. 서방극락정토 보살님이 27품으로 구분되는 것



약사성전 정안식

럼 약사정토도 27품으로 보살님들의 품위가 구분됩니다. 극락정토의 최고 품위의 보살님을 최상보살이라고 하고 약사정토의 최고 품위 보살님을 최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수보살님은 불격(佛格)을 갖추신 분으로 원만보신만 증득하지 못했을 뿐 지혜와 범력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약사정토의 보살님들은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하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모두 의술을 배우며 품위가 상승할수록 전문의가 됩니다. 약사정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의술을 연마하며 사바세계의 모든 약초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서원

약사여래부처님은 보살 인행(因行)시에 중생들

을 구제하고자 하는 12가지 서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서원이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두 가지입니다. 중환실제원(衆患悉除願) - 온갖 병에 시달리면 서 머물 곳도 없고 약도 없고 돌보아 줄 이 없 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한번만 스쳐 들기만 해도 병고에서 벗어나며 성불하길 원하 습니다. 제근구족원(諸根具足願) - 몸이 불구자 여서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굶주 문둥 병 등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일념으로 부르면 모든 병고와 사라 지고 몸이 온전하게 될 원하 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불하다

"약사여래부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대한

어른입니다. 무량겁 전에 불교를 중하고 정갈로 많은 병자를 치유해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의 피고름을 마다하지 않고 시고... 그래서 그 공덕이 숲을 이루고 온 법계에 가득할 정도로 공덕이 많은 분이 약사여래부 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불하 십시오." (2012년 2월 6일, 약사성전 정안식 자 재만현 크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법

매일 <약사여래본원경>을 독송하고 '약사다라 니'(약사여래본원경 중에 있음) 7회 내지 49회 독송하고 참회발원을 한 다음 '약사여래불' 정 근을 간절히 합니다. 정성스런고 간절할수록 부 처님께서 현신하셔서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 멸해주시고 병고를 치유해주시니, 기도할 때 는 청정수를 준비했다가 끝난 다음에 마시거나 비눗니다.



약사성전 대웅보전

※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9시 30분 봉행합니다

자재 만현 크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화상에서 불과 이룬 크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크스님의 동영상 법문(249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